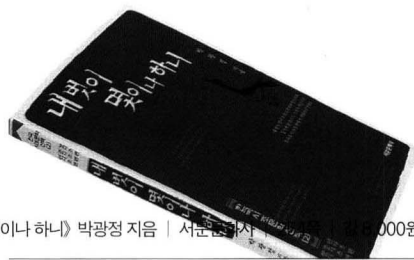


“우리네 고전이 이리 재미있는 것인 줄 몰랐지?”, 재미나는 시조, 재미나는 인생



《내 벗이 몇이나 하니》박광정 지음 | 서문당 펴냄 | 200원



책과 평생을 함께 해온 이에게는 오래된 서가書家의 향기가 난다. 배꼽지만 아늑한 서가에 머물고 있으면 많은 책들을 오래도록 품고 있는 그것의 너그러움에도 자연 숙연해지는 법이다. 오래된 서가를 닦은 수필가 박광정 씨(63)의 《내 벗이 몇이나 하니》에는 그가 밝은 눈으로 선별한 스물여섯 편의 고전시조가 담겨 있다. 작년 6월 출간한 단시조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 이어 연·중·장시조로 기획한 두 번째 시조선집이다. 윤선도 <오우가>의 운치 있는 한 소절을 제목으로 옮겨 놓았는데, 정철의 <반중 조흥감이>와 함께 그가 가장 애송하는 시조다.

“사람의 생이란 게 참 재미나지 않겠습니까. 15년 전 서울대학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고 ‘10년 살면 잘 살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미루고만 있던 고전시가 정리를 10년 계획 아래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향가에 이어 두 권의 시조선집을 내었고, 두 권의 가사문학

원고를 집필중인데, 그동안 5년을 덤으로 살고 있으니 재미나달 수밖에요.”

그의 시조선집 미덕 역시 ‘재미’에 있다. 각 시조의 해설은 원본의 의미를 훼손치 않고 쉽게 풀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조가 쓰인 시대적 배경을 풍요롭게 담고 있어 의미 있는 역사읽기까지 제공한다. 친절하고 다감하게 들려주는 개성적인 글쓰기는 40년 가까이 교편을 잡은 그의 이력에서 비롯된 듯한데, 한참 책을 읽고 있으면, “우리 시조가 이리 재미있는 것인 줄 몰랐지?”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책에 담긴 글을 기고하거나 연재한 적은 없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잘 간추려 놓은 작업의 구성과 의미가 흐트러질까 싶어 사양했지요. 우리 고전문학은 낡은 것이 아니라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고전이 대접을 받는 것은 고전을 전하는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었지요. 우리의 경우 고전을 가장 잘 아는 학자들이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편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의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알릴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의 고전시가를 알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정년퇴임을 맞은 그는 40년 가까이 잡고 있던 교편을 놓는 일은 아쉽지만, 남은 날을 고전시가 알리기에 몰두하며 또 다른 보람을 얻겠다고 한다. 얼마간 쉴 법도 하련만 그는 아침이면 노트북을 배낭삼아 짊어지고 집 근처 봉재산을 넘어 강서도서관으로 향한다. 출석을 한다는 말이 더 정확할 터인데, 잦은 대면으

로 가까워진 한 도서관 사서는 노트북 전원이 공급되는 그의 자리를 지금까지 특별히 맡아주고 있다.

“두 권의 고전시조선집을 내고 보니 시조작가나고 묻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시조는 제가 작업하는 고전시가의 한 대상일 뿐, 향가에서 가사, 혹은 잡가나 농가까지 우리 고전시가 전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필로 정식등단을 마쳤으니 수필가인 셈이기도 할 테구요. 우리 고전시가 정리가 끝나고 여유가 생긴다면, 맛깔 나는 소설 한 편을 쓰고 싶습니다.”

최근, 방송 <느낌표-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를 통해 한시를 쉽게 풀이한 책이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견주어 모자람 없고, 역사의 이면까지 두루 엿볼 수 있는 《내 벗이 몇이나 하니》의 일독을 권한다. 옛시조만큼이나 운치 있는 이 가을이 저 홀로 깊어가기 전에 말이다. **한민**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